

“수형자들의 땀과 성찰이 빚어낸 자화의 결실...”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가구·도자기·한지공예, 서예·그림 등 전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8.(수), 가을 정취가 완연한 과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문화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로 55회를 맞이한 교정작품전시회는 1957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교정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과 호흡하며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교정문화 행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통해 정성껏 갈고 닦은 가구·도자기·한지공예, 한국화·서양화 등 총 611점의 출품작 중 우수작 333점이 전시된다.

영예의 대상은 여러 목재를 상감해 조형적인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완성한 장식용 탁자인 ‘콘솔 1’이 차지했으며, 백자토 특유의 유려한 균열미를 담아낸 ‘백자균열홀림유대달항아리’와 금강경의 5,147자를 정제된 필력으로 써 내려간 ‘금강경 절첩본’이 각각 공예와 문예 부문 금상에 선정되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전시회 도록에 실린 인사 말씀을 통해 “이번 전시회가 수형자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였다.

11월 1일(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수형자들이 정성스레 가꾼 국화 분재와 조형작 등 400여 점이 전시장을 향기롭게 채우며, 교도작업 우수 제품 판매를 비롯해 교도관 제복 입어보기, 도자기 제작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붙임 : 교정작품전시회 설명자료 및 수상작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책임자	과 장	장귀남 (02-2110-3402)
		담당자	교정관	서호성 (02-2110-3404)



- **[취지]** 수형자들이 교도작업·직업훈련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교정 문화행사로서,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자립 의지 고취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에 있음

<연혁>

- 1957년 형무관학교에서 '전국 재소자 작업 및 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제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국립공보관, 세종문화회관, 과천시민회관 등에서 개최
- '23.~'25. 4개 지방교정청 동시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요**

- 행사명: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 (주최) 법무부[교정본부], (주관) 서울지방교정청, (시행) 서울남부교도소

- 기간: '26. 10. 28.(수) ~ 11. 1.(일) 5일간

- 장소: 과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

- 전시: 목공예·도자기·벼루 등 공예품과 그림·서예 등 문예작 333점

※ 출품작 611점 중 45점 입상(대상 1, 금상 3, 은상 8, 동상 13, 특선 20)

- 부대행사: 국화전시*, 교도작업 제품 판매, 제복 체험 등 각종 홍보 행사

* 수형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로 만든 다륜대작, 입국, 분재 등 400여점 전시

□ **[개관식]** 테이프 커팅식, 전시장 관람 등

- 일시: '26. 10. 28.(수) 13:30

- 참석자: ▲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 (외부인사) 과천시장 과천시의회위원장, 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

위원중앙협의회장, 교정공제회 이사장,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등

- 진행순서: 개관식, 테이프 커팅식, 전시 작품 관람 등

□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수상작

■ 공예부문 대상

- 작품명 : 콘솔 1
- 출품기관 : 공주교도소
- 규격 : 70×30×100

■ 작품 설명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콘솔1은 바닥에 비해 천판이 큰 기형적인 작품으로, 몸통 옆으로 좌우 활대 8개가 받쳐주어 안정감과 조형적인 멋을 줌
물푸레, 단풍, 회화나무, 참죽 등 여러 가지 목재로 구성된 다양한 색상과 섬세한 조각 상감으로 미적 아름다움을 잘 표현함



■ 공예부문 금상

- 작품명 : 백자균열흙림유대달항아리
- 출품기관 : 안양교도소
- 규격 : 55×55×55

■ 작품 설명

백자에 균열유를 균일하게 성형한 작품으로, 작가의 제작 능력이 뛰어남을 가늠할 수 있으며, 달항아리를 균형감있게 잘 표현한 수작임



■ 문예부문 금상

- 작품명 : 금강경 절첩본
- 출품기관 : 부산교도소
- 규격 : 31×780

■ 작품 설명

금강경 절첩본은 총 5,147자로 글자 수만큼이나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작업으로, 필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쉽게 작업할 수 없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임

